

동시대 예술현장에서 펼쳐지는 민주·인권·공동체 한마당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11월24일까지 베니스서3개 섹션展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살아 숨쉬는 열린 ‘광주 정신’ 담론 공유

창설 30주년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하는 아카이브 특별전이 오는 11월24일까지 베니스 현지에서 펼쳐진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8일 오전 11시(베니스 현지 시각)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을 통해 세계 시민 사회에 ‘광주정신’을 알린다.

이번 특별전은 광주비엔날레의 30년 역사를 조망하고 민주·인권·공동체 정신의 열린 담론을 제안하는 장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 자아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에 마련된 이번 전시는 광주비엔날레의 차별화된 방향과 광주 정신을 세계 각국 미술 관람객들과 공감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축적된 아카이브 자료들과 소장품, 그 의미를 확장하는 작품들이 공명하면서 광주비엔날레가 30년 동안 지향해온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마당’으로서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시 제목인 ‘마당’은 한국어로 ‘오픈이 되는 공간’을 뜻한다. 광주비엔날레는 30년 역사 동안 시각예술을 통해 다양한 화두가 발화되는 장으로서 ‘마당’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전시 또한 이러한 광주 정신을 조망하면서 광주비엔날레의 동시대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기획 의도를 두고 있다.

전시는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연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역대 전시 포스터를 포함해 예술 감독 및 큐레이토리얼 팀, 전시 주제, 참여 작가 목록, 전시 장소를 표기한 지도 등을 전시한다. 다큐멘터리 ‘광주비엔날레, 30년의 시선’은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기획자와 작가들의 인터뷰로 그 발자취와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소장품과 그 의미를 확장하는 세 명의 한국 여성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백남준의 ‘고인돌’ (1995)과 크초 (Kcho)의 ‘잊어버리기 위하여’ (1995) 두 작품을 통해 광주비엔날레가 그 시작부터 지향해 온 가치를 만날 수 있다.

고인돌 거석 형태로 쌓인 TV와 장동과 같은 한국 전통 오브제가 병치 설치된 ‘고인돌’은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광주 공동체를 기리는 의도로 제작됐다.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는 쿠바에서 보트로 탈출했던 난민 공동체의 삶을 은유한다.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일명 ‘보트 피플’이 남기고 간 뗏목, 타이어, 낚은 배 등 쿠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을 재료로 활용하면서 그들의 긴박하고 위험한 탈출과 위태로운 삶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아울러 지난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김실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 전시 전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 크초작 ‘잊어버리기 위하여’, 백남준작 ‘고인돌’, 광주비엔날레 연대기 관련 전시 섹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유물 ‘양은함지박’

비·김아영·전소정 세 명의 여성 작가는 영상매체 작품을 통해 각각의 출품작들이 형성하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재창안한다.

김실비의 ‘빛지지 않는 삶’ (2021)은 역사에서 누락된 소수자들에게 노래를 부여하고 빛을 비춘다. 김아영의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 (2019)은 데이터의 이주와 난민의 이주를 병치시키면서 지구상의 이주에 대해 재조명한다. 전소정의 ‘공인들의 배’ (2016) 또한 이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시대 난민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유물 ‘양은함지박’도 전시된다.

5·18 당시 광주 어머니들이 시민군에게 나눠 주기 위해 만든 주먹밥을 담았던 함지박으로 광주 공동체를 상징한다.

세 번째 섹션은 아카이브 섹션으로 광주비엔날레 행보를 담고 있는 소장 자료들이 전시됐다. 전시 포스터, 티켓, 리플릿, VHS, CD, 전시 도면 등 역사적 실물 자료를 비롯해 디지털화된 소장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

두의 울림’ 주제와 특징적 서사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예고편 역할의 비디오 에세이 ‘판소리로부터 배우다’가 전시장에서 상영 중이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베니스 현지에서 마련된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을 통해 다시 한번 광주비엔날레 창설 의미를 되새길 바란다”며 “국제 사회가 공감하고 연대하며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 생성되는 의미 있는 전시이자 ‘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빛고을 미술 꿈나무 ‘꿈’을 응원합니다”

오는 29일부터 2024 광주학생미술대전 참가작품 접수

광주지역 미술 꿈나무들의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거점 마련을 위한 ‘2024 광주학생미술대전’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립미술관과 (사)광주미술관회가 주최하고 (주)광주신세계가 후원한다.

광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 기한은 오

는 29일부터 5월6일 오후 6시까지다. 공모주제 ‘환경’, ‘나의 꿈’, ‘가족’ 중 1가지를 선택해 4절지 도화지에 재료 제한없이 그림을 그려 촬영한 작품 사진(파일), 신청서 등을 온라인(이메일 artmo2mo@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선정된 작품 사진(파일) 90점에 한해 원

본 그림을 다음달 11-14일 오후 6시까지 시립미술관 안내데스크에 2차 접수하면 된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60점은 다음달 21일 광주시립미술관·(사)광주미술관회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대상(광주시장상) 4점, 최우수상(광주시장상) 4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 특선 14점, 입선 30점 등으로 시상식은 추후 개별 공지·개최할 계획이다.

대회 일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062-531-889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가수 김창환, 첫 동시집 원화展 25일까지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이 오는 25일까지 가수 겸 탤런트 김창환 씨의 첫 동시집 ‘무지개가 편방이 봉방방’ 원화를 전시한다.

김창환 씨는 산울림 시절인 40여년 전부터 ‘개구쟁이’, ‘산 할아버지’ 등 동심 가득한 노래로 사랑받은 바 있다.

‘무지개가 편방이봉방방’은 그가 그동안 쓴 200여편의 동시 중 51편을 선정해 묶은 동시집이다. /목포·정혜선 기자

전시회에서는 김창환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담긴 ‘소그리기’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원화 전시를 통해 다른 시인들과는 차별화된 김창환 작가의 색깔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목포시립도서관은 제60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목포시립도서관 개관 50주년 특별 전시’를 펼치는 등 4월 한달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가 답이다

영무에다음

최고의 가치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에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튼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문의 전화 1533-8321

HILLSTATE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실시기 이미지는 소버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얄층 마감임박

총 1,466세대 분양 선착순 등·호수 지정 계약중!!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1,466세대 대단지	(구)33평형, 43평형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동·호지정
----------------	------------------	-----------	---------------	--------------

대표 전화 1533-8316